

기존 전문지, 포털 검색제휴 후 광고 압박



올 상반기 포털에 새롭게 제휴를 맺은 일부 매체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여론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지역일간지, 기존 매체의 자회사, 전문지 등 70개사를 검색제휴 매체로 대거 통과시켰다.

당시 늘어난 매체에 대해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은 “뉴스검색 매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근 문화나 연예, 스포츠 등 전문 콘텐츠로 포털에 입점한 일부 매체들

이 경제분야로 노선을 변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지의 연이은 기업기사 게재

대표적인 예가 <M저널>이다. 지난 5월 네이버 검색제휴 심사에 통과한 이 인터넷신문은 매체 소개란을 통해 ‘문화예술 언론분야 1위 신문’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관련 기사들이 뺄뺄이 자리 잡고 있다. 문화환경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창간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보다.

8월 한 달간 보도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M저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메인화면을 비롯해

‘경제란을 통해 기업 관련 부정적 기사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보도행태도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의 전형적인 ‘기업때리기’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최근 <M저널>에 게재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재해 본 결과, 소속 기자들이 이미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광고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M저널>로부터 취재문의가 받았다는 한 기업 홍보담당자는 “처음에 <M저널>이라고 해서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쪽에 연락을 취했는지 의아해 했는데, 갑자기 CEO와 관련해 취재 문의가 들어와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을 전했다.

포털, 뉴스제휴에 신중 기하고 퇴출기준 강화해야

이처럼 전문지 역할을 해오던 매체들의 일탈이 포털 검색제휴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광고주는 “최근 검색제휴를 통과한 일부 매체들이 대우를 달리 해달라며 접촉을 시도해오고 있다”며 “기사

날짜	기사제목
8/23	삼성그룹 차명주주 통해 감춰온 위장계열사 정황, 17년 만에 밝혀지나
8/19	계열사 新사업 부진에도 연봉 더 두둑해진 코오롱 이응열 회장
8/19	믿었던 중국에 배신당한 잇츠스킨...막힌 수출길에 '추락행진'
8/19	신종 '甲질' 창조한 정일선 사장, 상반기 보수는 '여전하네'
8/18	부당수주 논란 '삼성물산' 최지훈 사장, 상반기 건설업계 연봉 1위
8/17	민달팽이·비닐조각 이어 닭털까지...맘스터치 위생논란 '도마위'
8/17	'소송사기'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 하청업체에 해외여행비 요구
8/16	삼성물산, 1조 7천억 규모 재건축사업 '부당 수주' 논란
8/12	금호터미널-금호기업 합병 제동...실사 조작 논란
8/12	檢,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딸 신유미 '무상급여' 정황 포착
8/10	'재규어 XE' 유명차 판매 논란 티몬...“다른 루트 통해서라도 공급할 것”
8/4	GS그룹 허창수 회장, 적자지속에도 GS엔텍 '퍼주기' 논란
8/4	대웅제약 페니실린계 주사제 '설바실린주' 품목허가 취소 위기

▲ <M저널>에 게재된 기업 관련 기사



로 광고 협찬이나 금품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포털과의 뉴스 검색제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포털에 노출되는 악의성 기사로 기업을 압박해 광고를 뜯어내는 이른바 ‘유사언론행위’가 언론의 주 수익원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모든 비난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돌린 채 제휴 매체 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휴평가위 소속 위원은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제휴를 통과한 매체들이 기업기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는 광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언론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포털이 이러한 언론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털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털 일변도의 뉴스 유통과 소비 환경 속에 처한 인터넷신문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인터넷뉴스의 저널리즘 회복을 위해서는 포털이 뉴스제휴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문제 매체에 대해서는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KA A**

유재형 기자 yoojh1999@kaa.or.kr